

<제6차 남북적십자회담>
보 도 참 고 자 료

1. 개 요

-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2005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였고,
 - △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·주소 확인 문제 △화상상봉 지속·확대 문제 △이산가족 교류 확대 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나,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.
 - 이번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 대북접촉 기회를 통하여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.

2. 주요 협의내용

- 우리측은 “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(국군 포로·납북자)”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회담에 임하였음.
 - 우리측은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생사주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,
 - 북측이 대상범위를 전쟁시기 행불자로 한정하고, 일반 이산가족 범주 내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
- 화상상봉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음.

3. 평가

- 우리측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,
 - 많은 부분에서의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, 이 문제를 제외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.
- 화상상봉,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지속 실시와 정례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한 만큼, 추후 합의하여 추진할 계획임.